



이명미 씨의 우바이무용단을 창단. 현대 불교 무용의 영역을 개척해 왔다.



제8회 전국무용제에서 문광부 장관을 받은 카르마의 한 장면.

"전통 소리, 의상, 몸짓, 조명이 어우러진 가운데 한국의 혼과 정신을 느낄 수 있는 무대가 될 것입니다."
선수단을 포함한 4천여 명의 인원이 동참하는 아시안게임 폐막식 공연 '세계로 가는 기차' 마지막 무대 안무를 맡은 이명미(우바이무용단 안무가. 43)씨는 학

교와 경기장을 오가며 막바지 연습에 한창이었다.
1996년, 한나래문화재단의 이사장 심산 스님과 불교무용단 우바이무용단을 창단하고 '불교무용'이라는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온 이명미씨의 이번 안무는 불교계의 자랑이자 자존심이다.

원용무에 정신을 세계인에 ...

무용가 이명미 씨 아시안게임 폐막식 안무

4천여명 참여 '세계로 가는 기차' 공연
소리·몸짓 어우러진 혼의 무대 펼쳐터

특히 이번 공연은 제8회 전국무용제에서 문화관광부 장관상을 차지한 '카르마'와 연극 '느낌, 극락 같은'의 안무에서 보여준 이씨의 독창성과 실험성이 또 한번 여지없이 발휘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세계로 가는 기차'의 작품 구상과 소재 또한 독창적이다. 왜가 있고 한자재 미래로 전진하는 기차를 표현하기 위해 이씨는 탈춤사위, 선무도의 발드딤새 동작, 추임새 소리 등을 가미했다. 사람과 사람이 만나 만들어낸 거대한 기차는, 휘감아 원을 그리며 만나고 헤어지는 동작을 반복하며 아시안게임의 마음을 여는 대화의 장을 펼쳐 놓는다. 무용수 3천여 명 외에 선수단, 경기 운영

관계자 등 까지 참가할 수 있도록 해 그야말로 아시안게임이 함께 만드는 인간 기차가 탄생할 예정이다. 운회와 시공을 넘어 원용무에의 정신으로 세계로 나아가는 아시아, 이것이 이씨가 이번 공연을 통해 세계인에게 전하려는 메시지이다.
이씨는 '기대가 높아 무척 부담스러운 작업이지만, 즐거운 마음으로 전체 무대의 조화를 최우선으로 두고 그 속에 불교 사상을 녹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전통 춤의 한 맥으로 숨쉬고 있는 불가의 춤들을 재조명,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부산= 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a.com

창작 찬불가 공모대회

공연실황 기념음반 제작

조계종 총무원엔 새로운 찬불가의 제작 보급과 불교음악인 발굴을 위해 지난해 12월 실시했던 제3회 창작찬불가 공모대회 공연 실황기념음반을 제작했다.
대회 당시 대전교도소 무기수로 자신이 직접 작사작곡한 노래 '나 유타'로 대상을 받은 최봉종씨 외 수상곡 9곡과 제2회 찬불가공모전 대상곡 '나모' (박상훈 작사 작곡), 좋은벗 풍경소리의 찬불가 '오늘은 좋은날' '길 떠나자' 등이 수록되었다.
비매품 법보시 용으로 2000 장을 제작 관련 단체와 사할 합창단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이은자 기자 eejel@buddhapa.com



김홍근이 쓰는 문학 속의 불교

가을 지면 개편에 따라 그동안 연재해오던 <문학 속의 불교>도 이번 호를 끝으로 인연을 접게 되었다. 돌이켜 보면 작년 1월 17일에 연재를 시작한 이래, 지금까지 끊이지 않고 글을 써온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글을 쓰는 동안 가장 어려운 일은 뭘 써야 할지, 소재를 구하는 것이었다. 처음 연재를 맡았을 때 뚜렷한 계획이 서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믿을 구석은 글은 내가 쓰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마치 알(화두)을 품고 기다리면 때가 되어 병아리로 깨어나듯, 소재가 발견되면 스스로 익어 글이 되도록 기다렸다. 때로 그 속도가 더디어 조바심이 나는 때도 있었지만, 한 번도 원고가 늦은 적은 없었다. 세상에서 가장 길긴 것은 생각의 끈인 것 같다(面前一絲 長時無間).

나는 재주도 없고 가끔 세파에 쫓겨 알 풀는 시간이 모자라기도 했지만, 되도록 살아있는 글을 쓰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글 속에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 세 요소를 넣으려고 애썼다. '참'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여기선 '불교적인 진리 혹은 메시지'이고, '지'는 튼튼한 바탕으로 '구체적인 문학 작품'이며, '인'은 그 둘을 소화시켜 조화롭게 표현하는 '필자의 재능'이다. 만사가 그런 것처럼, 이 셋이 잘 어울릴 때 좋은 글도 나온다고 믿는다. 문제는 그 셋을 한데 묶을 수 있는 인연의 계기인데, 글의 소재가 자연스레 떠오르는 때는 대개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들을 순간이었다. 일단 글감이 정해지면, 마치 라디오를 틀고 튜닝만 하면 음악이 흘러나오듯이, 펜을 통해 글이 흘러 나왔다.
이번 주에 내가 읽은 책은 틱낫한 스님의 <첫 사랑은 맨 처음 사랑이 아니다>이다. 이 시대의 대표적인 '구루(耆宿)'로 존경받는 이 스님은 <금강경>, <화엄경>, <법화경>을 서양인들에게 설명하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 자신의 첫사랑 이야기를 들려준다. 45년 전 스물네 살의 눈 푸른 남자 시절 그는 베트남의 원각사에서 스무 살의 비구니 스님을 만나 사랑에 빠진다. '내 사랑은 폭풍 같았고 그 사람은 내 폭풍에 사로잡혀 날아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젊었고 그래서 우리는 바람에 날렸습시다.' 헤어지기 전날 밤 스님은 타고르는 열정에 사로잡히지만, 간절한 보리심이 그들을 지켜주었다. 그 뒤 그들은 잠시 재회의 기쁨을 나누지만, 베트남 전쟁의 소용돌이와 주변의 시기로 비구니 스님은 끝내 승단을 떠나고 두 사람은 다시는 서로 만나지 못한다.
가슴 아픈 사랑이었지만, 그 체험은 일행(一行, 틱낫한 스님이 불교의 깊은 진리를 깨닫고 남에게 전달하는 데 도움을 준다. <금강경>의 밝은 눈으로 보면, 사랑했던 그 사람이 사실은 사람 아닌 요소들로 이루어진 존재인 까닭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음을 깨닫는다. <화엄경>의 장엄한 눈으로 보면, -한 송이 꽃을 통해 태양과 온 우주를 만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로- 자신과 그 사람이 지금 이 순간 서로 안에 있음을 깨닫는다. <법화경>의 자비심 가득한 눈으로 본다면, 첫사랑은 맨 처음 사랑이 아니라 시작도 끝도 없이 이어지기 때문에 그 사랑과 사랑은 영원함을 깨닫는다. 사랑의 몸통이는 누구나 후회하지만, 틱낫한 스님은 슬프지만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통해 그 상처를 승화시켜 꽃으로 피우는 방법을 일러준다.(마지막회)
■문학평론가

색 입기 전 불화 감상하세요

24~10월 12일 동국대서 '조선불화 초본展'



병진스님 소장 불화초본. 화려한 고려불화에 비해 조선불화는 소박한 듯 우아하고, 은은한 멋이 일품으로 평가 받는다. 그 조선불화에 색을 입히기 전의 모습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

병진스님 소장 조선불화 초본 전시회가 24일~10월 12일 서울 동국대학교 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불화 초본(初本)들은 마곡사의 화풍을 잇고 있는 병진스님의 은사인 정연스님이 생전에 모아 놓은 것으로, 아미타구품도, 갈로탱화, 산신도, 독성도, 칠성도 등 50여점이 선보인다.
40여년간 불화 그리기에 전념해 온 병진스님은 1971년 제2회 불교미술대전 최우수상 수상했으며,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서 불교전문 화실 금어원을 운영하고 있다. 022260-3462

문화재 복원작업 예술경지로

문화재 기능인 107명 덕수궁서 작품展

고건축·목공예·불화·조각 등의 분야에서 우리 문화의 전통을 오늘에 이어오고 있는 문화재기능인 107명이 문화재 보수 복원 작업의 경험을 창작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10월 2일~20일 덕수궁 내 유물전시관에서 열리는 제6회 문화재기능인 작품展에서 이들의 작품 155점이 선보인다.
문화재기능인협회 신용수 회장은 "이번 전시는 각 분야에서 활동해 온 문화재기능인들이 자신의 기량을 선후배 기능인들과 함께 비교하고 공부할 수 있는 경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명재작 '모란당초사군자문머릿장'. 특히 이번 전시부터 작품작 가운데 우수작을 뽑아 문화재청장 상과 문화재기능인 협회장 상을 개막일인 2일 발표할 예정이다. 023672-8805

승복 조기 손누비 강좌
중요무형문화재 107호 누비장 김해자씨가 승복조기 손누비 공개강좌를 연다.
10월 2일~5일 4회에 걸쳐 이뤄지

는 이번 공개강좌는 23일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4일은 비구니스님, 5일은 비구스님을 대상으로 강좌를 진행한다.
승복조기의 곁집은 솜들을 염색한 명주로, 안감은 목초액을 염색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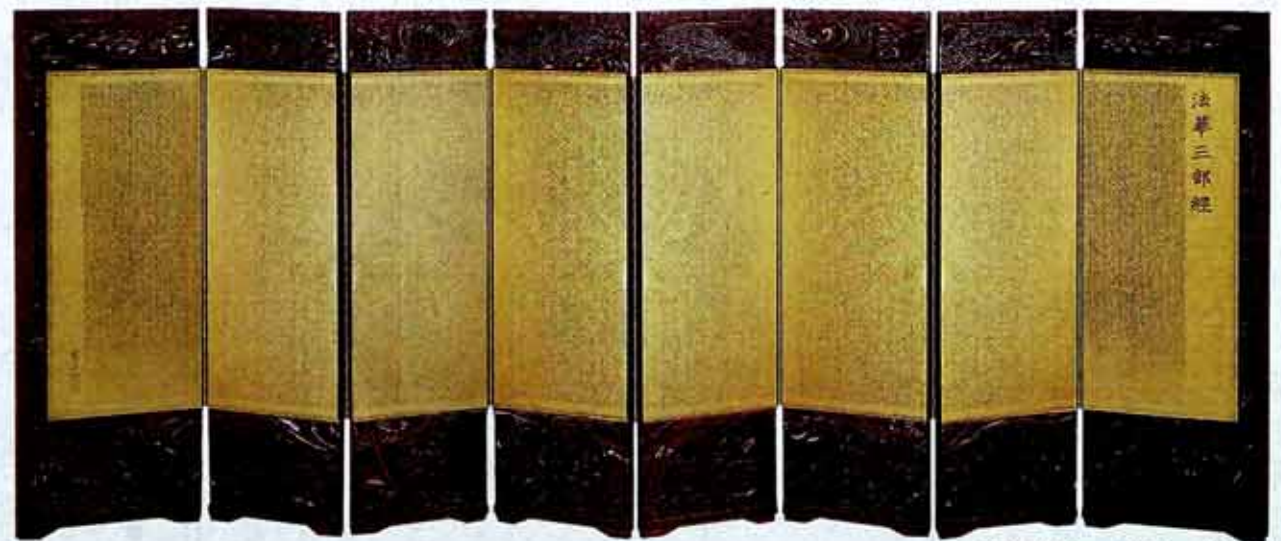
문화소식
명주로 사용한다. 접수는 31일까지
매 강좌 당 선착순 30명이다. 054775-2631

출판문화사업 공청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은 26일 오후 2시 한국방송회관 3층에서 '출판문화산업 육성,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출판문화산업 발

전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이날 공청회에는 만화가 이현세씨, 세종대 한창완 교수, 덕성여대 이원복 교수 등이 참여한다. 023704-9650

法華三部經(법화삼부경)金泥(금니)8폭 조각 병풍

- 法華三部經(법화삼부경)金泥(금니)8폭 조각 병풍 특징
1. 법화삼부경(무량의경 3품, 요법연화경 28품, 불살관보현보살행법경 1품)8만 4천여자불8폭 금속활판 위에 또렷이 읽을수 있도록각각으로 새겨서, 그위에 순금으로 도금하여 조성한 웅장하고 장엄한 불교(성품)입니다.
2. 법화경의 공덕을 아시는 스님과 불자님에게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3. 본 병풍은 대대손손 집안의 가보로 전해질수 있도록 오랜세월이 지나도 변형이 되지 않는 목재와 특수재질을 혼합하여 조성하였으며, 본 병풍의 소장자는 그 이름을 금속판에 새겨서 순금으로 도금한후 병풍뒷면에 부착해 드리고 있습니다.
4. 본 병풍은 한폭을 조성하는데 많은 시간과 경비와 어려움이 따르고 또한 불량률이 높아, 일년에 10품정도밖에 조성처 못하고 있습니다.
5. 필요하신 분에게는 본 병풍의 카드로 그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문의 및 신청
성지관음회
전화: (031)334-9490, 334-9491
야간: (031)706-3060
경기도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